

광주 의원들 지역현안 토론회 정례화

광주은행 분리매각 등 사안별 해법 모색

전남 국회의원, 시·도와 공조 구축 절실

민주통합당 광주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안별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전남지역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는 물론 광주시, 전남도 등과의 공고한 협조 체계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장병환 광주시당위원장 등 광주지역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6명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효율적인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

은 지역 현안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사안별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달에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온 '광주은행 분리 매각'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엔 광주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금융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 광주은행 분리매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광주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을 각 분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들도 당원 중심이 아닌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 폭을 넓히기로 했다.

광주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민심 속에 살아 숨 쉬는 광주시당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당 예결위원장은 박해자 의원이, 윤리위원장은 임내현 의원이 선임됐다. 운영위원회, 상무위원회,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도 추후 논의를 거쳐 현역 국회의원들이 맡기로 했다. 또한, '2030 세대'와의 소통과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초초반과 심화반 등 2개 반으로 나뉜 '정치학교'를 개설하기로 했다. 광주시당의 '정치학교'는 교과 과정과 강연진 확정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정치권의 공조는 물론 지자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소한 분기별로, 광주와 전남지역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통합진보당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도 보다 공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대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 마련 등을 위한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와의 공조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철 의원은 "19대 국회가 정상 개최하고 상임위가 정해진 이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라며 "19대 국회에 진입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욕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공조가 잘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문도 못여는 19대 국회

여야 대치...오늘 첫 본회의도 불투명

민생외면 비난 속 공전 장기화 가능성

여야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이 불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19대 국회가 출범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5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일정을 지난 1일 공고했다.

새누리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먼저 열어 19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로 거듭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타결 전에는 본회의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5일 본회의장에 입장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할 가능성이 작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18대에 이어 19대 국회도 개원식을 열지 못한 채 장기 공전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개원이 지연되는 것은 상임위원장 배분, 불법사찰 및 언론사 파업 해법 등을 놓고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그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상임위원장(총 18개) 배분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11개, 민주당 6개, 자유선진당 1개의 18대 국회 비율을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로 조정하려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다. 그러나 법사위와 문방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크다. 새누리당은 애초 선진당 몫이었던 복지위원장과

함께 윤리특위위원장을 양보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발 속에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여당 몫 윤리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이와 별개로 여당 몫 정무위·국토위·문방위 3곳 중 하나를 줘야 원구성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유럽발(發) 경제위기로 국내 실물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과거처럼 정쟁에만 몰두해 민생을 저버린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여야 모두 말로는 '민생 올인'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관심은 대선과 전당대회 등 당 안팎의 선거에만 쏠려 있는 모습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수경 막말 파문 확산

대국민 사과 불구 탈북자·하태경 반발

박지원 "당 차원 조치없다" 서둘러 진화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하태경 막말'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임 의원과 민주당에 사과는 물론 당의 책임 있는 조치까지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한 가운데 임 의원의 처리를 놓고 당내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임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뒤 트위터를 통해 해명했지만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자 4일 기자들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임 의원은 "저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모든 논란은 저의 불찰로 인한 것이고 제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를 입었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 의원의 변절자 발언은 탈북자 강제북송을 주장하는 북한의 논리와 전혀 다를 바 없다"면서 "임 의원의 반인권적, 반자유민주주의적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이 '변절자'라고

표현한 하태경 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나는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독재와 반인권 참상을 목격한 뒤로 북한인권운동에 헌신해 왔다"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 참상을 침묵으로 일관하는 국내 중북세력이야말로 역사와 조국을 배신한 변절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자동지회, 자유북한방송 등 탈북자단체들도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과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 모여 임 의원에게 "당신의 조국 북한으로 가라"며 국회의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임 의원의 발언을 개인 차원의 '말실수'로 규정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임 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해명을 믿는다.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임 의원의 발언에 신뢰를 보낸다"면서 "당 차원의 조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1일 해남을 해남터널 앞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공적비 제막식에서 김 전 부의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박철환 해남군수 등이 비문을 살펴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성기자 dia@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공적비 제막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봉호(80) 전 국회부의장(민주당 해남·진도)의 공적비 제막식이 지난 1일 해남군 해남터널 앞 만남의 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제막식은 공적비 건립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김대용 목사·대한불교조계종 총회회장 보선스님·해남향교 운영진 장교)에서 김 전 부의장이 20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재임 하면서 많은 공적사업과 지역구

현안사업을 유치·해결하고 노동자·농어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적을 높이 기리고자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총회회장 보선스님, 정창호 재중국 한인회부회장 겸 동북3성(요령·흑룡·길림성) 연합회장, 박홍석 광주상공회소회장 등 정·계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성기자 dia@

“총선 패배 반성...정권교체 올인”

민주당 의원 워크숍, 국회부의장 후보 박병석 선출

민주통합당 4선의 박병석 의원이 4일 19대 국회 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2 승리! 민주통합당 워크숍' 도중 열린 경선에서 모두 127표 중 86표를 획득, 41표를 얻은 5선의 이석현 의원을 45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는 국회부의장은 관례상 여야가 한 명씩 차지하는 만큼 박 의원은 개원국회가 열리면 부의장으로 확정되게 된다. 19대 국회 의장단은 강창희

의장, 이병석·박병석 부의장 체제로 구성되게 됐다.

민주당은 앞서 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총선 패배를 반성하고 오는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의 주요정책 과제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한반도평화 ▲재정개혁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헌법안 19개를 제출했고, 경제민주화·언론정상화·노동기본권·무상의료·국민경선제 등 당면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속 민생법안 제

출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명박정권이 이 야기 한 장밋빛 청사진은 국민 절망 시대의 참혹한 현실로 나타났다. 1%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99%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제 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김호기 연세대 교수와 김태일 영남대 교수의 '12월 대선 승리를 위한 과제' 강연을 들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김두관 “출마 결심엔 7월쯤 발표”

김두관 경남지사는 4일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6월 예정된 일정을 정리하고 7월쯤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진보진영 입장에서 새누리당의 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야권에서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중 누가 가장 본선 경쟁력이 있고 표의 확장성이 있느냐"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주자가 있지만 정 말 서민 입장에서 성공한 서민정부를 구성하고 비전을 준비하는 후보를 보지 못했다"며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 소외당하는 서민과 경제적 약자의 삶 속에서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나는 친노지만 친노를 좁혀 패밀리 개념으로 이해할 때

그 속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한다는 면에서는 당연히 친노이지만 문재인 상임고문이나 이혜찬 후보와 달리 '패밀리'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이가 그는 "2002년 노무현 당시 후보와 정치적 연대를 하기 전 저는 지방행정을 쫓고 남해군수로서 작은 지역에서 성공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성공했다)"며 "처음부터 노 대통령과 함께 한 참모들과는 삶의 궤적이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매투자

- ▶경매비법 배우면서 수익 내실분
- ▶입찰반 / 회비 550만원(4명 한)
- ▶이론반 / 회비 55만원(24명 한)
- ▶특수물건만 취급

수료증 단독 / 공동투자가능

투자자 모집

- ▶경매 물건중 특수물건만 투자
- ▶근저당 1순위 설정 / 기동기
- ▶투자금 1억원 이상

년 20~50% 수익률!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부실채권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친절상담 010-8617-7899

여성가족부 인정 2012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 2012년 7월 2일(월) ~ 8월 3일(금)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접수기간 : 2012년 6월 15일(금)까지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2만원
 -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
 - ④ 사진 2매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번지 교학처 (062)605-1112, 1063